



칼럼 배철현 고전문헌학자

스스로에게 훌륭하십니까

한 중견기업에 이끄는 A씨가 며칠 전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국내 모 대기업의 대표이사였는데, 퇴직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기 위해 휴직기를 갖는 중이었다. 그러다 뜻밖에 현재 시무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로 발탁돼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의도한 삶의 스케줄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그의 이메일에는 의미(意味)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고심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헬렌 니어링(1904~1995)의 책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읽고 큰 영향을 받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할 참이었는데, 다시 경쟁을 통한 성공이 미덕인 현실세계에 다시 뛰어들게 됐다.

A씨는 삶의 미션(mission)을 찾고 있다. '미션'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무대에서의 유일무이한 배역(配役)이다. 내가 후회 없는 배우로 남기 위해서는, 관객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감동적인 연기를 발휘해야 한다. 내가 맡은 배역이 감동적이기 위해서는 그 배역이 자기-자신이 되어야 한다.

인생이란 무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러시아 영화 감독이자 배우였던 콘스탄틴 스타니슬라프스키(1863~1938)이다. 그는 배우가 자신이 맡은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 배역

의 인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 훈련 준비 그리고 연습과정을 '시스템'(system) 혹은 '메소드'(method)라고 불렀다.

스타니슬라프스키는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창립한 후, 셰익스피어, 안톤 체호프, 막심 고리키, 그리고 미하일 불가코프 같은 소설가와 극작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 배우를 훈련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는 체호프의 '갈매기'(1898)를 무대에 올리면서 배우의 의식과 의지를 훈련시켰다. 그렇게 배우의 무의식, 감정 그리고 충동까지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무대 위에 선 배우의 진정성은 자신이 그런 연기를 하는 내적인 동기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자각이 행동으로 매 순간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 배우의 외적 연기는 몰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면 연기이다.

외적연기와 내면연기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없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즉흥연기조차 자연스럽다.

A씨는 자신이 '성공한' 기업가이자 '훌륭한' 기업가로 기억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성공이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날다른 안목과 결단으로 팔목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행위다. 안목(眼目)은 누구에

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보물'을 발견해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실력이다. 인생은 언제나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두 갈래 길의 연속이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란 시의 내용처럼, 인생에 등장하는 두 길은 똑같다. 두 길 다 걸어 보지 않고는, 어느 길이 더 나은 길인지 마땅히 추측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안다. 자신이 이끄는 대중의 의견들은 항상 분분하고 동시에 상충된다.

대중은 서로 상충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수가 원한다고, 그 방안이 옳을 수 없고, 소수가 주장한다고, 그 방안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깊이 숙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깊은 성찰을 통해 그 방안을 도출시켜야 한다. 지혜로운 침묵이 그를 인도할 것이다. 지혜로운 침묵을 통해 산출되는 신의 선물은 '안목'이다.

'성공한' 기업가는 안목을 지닌 자이지만 '훌륭한' 기업가는 자신이 성공하려는 목적을 선명하게 아는 사람이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왜 성공한 기업가가 되려 하는가?" 이 질문은 인생이란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의 결승지점과 같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으로 경쟁선수들보다 앞서 달리는 데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결승지점을 알지 못하다면 낭패다. 그는 영원히 경주를 완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과 정신을 고갈시키는 경쟁에 휘말려 스스로 자신을 소멸시키고 만다.

성서에 등장하는 영웅 '욥'은 세속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었다. '욥' 저자는 욥을 '온전(穩全)하고 정직(正直)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욥기' 1.1) '온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탐'(t?m)이고 '정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살'(y???r)이다.

'탐'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양심에 비춰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이를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야살'은 나의 식구, 친구, 그리고 동료들이 보았을 때 '훌륭한' 사람을 지칭한다. 그는 언제나 정직하고 친절하다.

'욥'의 저자는 욥을 '정직하고 온전하다'라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표현했다. '온전한 인간'은 자신의 양심에 비춰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하게 정직하기 때문이다.

나는 A씨가 성공한 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기업가가 되면 좋겠다. 자신에게 훌륭한 사람이 남에게도 훌륭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메일을 받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내가 맡은 배역에 온전히 몰입했는가? 나는 양심에 비춰 괜찮은 인간인가?"

社 說

성범죄 처벌 기준 대폭 강화하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웹캠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사이트 회원 전수조사를 위해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하라는 청원과 손 씨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청원도 있다. 미국 언론은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미국인들은 징역 5~15년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손 씨는 한국에서 1년 6개월 만에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면 국내 수사가 지장을 받아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발본색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송환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범죄인 인도'는 외국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국내로 도피한 경우 해당 국가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를 체포해 넘겨주는 절차다. 그런데 손 씨가 범죄를 저지른 곳은 인터넷 공간이고, 그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손 씨는 한국에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손 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방대한 사건 규모와 비교해 수사 진척이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진 근본적 배경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다. 특히 한국의 검찰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유난히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과 달리 법원의 판단이나 검찰의 수사 관행은 과거형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조처에 나서야 한다. 사법 당국도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류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사로 '고임목' 없이 주차 안 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하준이법'(개정 주차장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7년 10월 경사진 주차장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어 최하준 군(당시 5세)이 세상을 떠났다.

하준이법은 경사로 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경사로 주차장의 명확한 기준이나 고임목의 형태나 크기, 개수 및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장에 혼란만 가중되

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필자의 주거지 앞 경사진 도로에 주차를 불분하고 수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지만 고임목을 사용한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경사로 주차시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는 안내표지 문구도 보이지 않았다.

경사로로는 주로 지방에 비해 수도권과 광역시권역에 많은 관계로 이로 인해 사고위험 또한 높다.

거기다 혹여라도 이동형 고임목을 못 방지하면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형 고임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주행 중인 자동차가 고임목을 밟거나 보행자가 고임목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제2의 하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p>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반)</p> <p>호남신문</p> <p>대표전화 (062) 229-6000</p> <p>광고국 (062) 224-5800</p> <p>기사제보 (062) 971-7400</p> <p>팩스 (062) 222-5547</p>	<p>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p> <p>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p> <p>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p> <p>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p> <p>Tel (02) 2238-0003</p> <p>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p> <p>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